

# [한라산 학술 대탐사 연재 200회]한라산의 진면목 재조명

특별취재반 기자

입력 : 2004. 06.18. 00:00:00



▲2000년 8월말 두만강 발원지에서 탐사단은 중국쪽 원류와 본류를 탐사한데 이어 조·중 국경지대를 따라 2백여 km를 답사했다.

○... 한라산탐사단은 제주지역 탐사에 그치지 않고 해외 비교탐사에도 관심을 쏟았다. 백두산·두만강대탐사와 일본 남부 규슈탐사가 그것이다. 2000년 8월과 9월 실시된 백두산·두만강탐사는 민족의 시원을 탐사를 통해 재조명해보려는 의지하에 시도됐으며 탐사팀장은 같은해 북한을 경유해 백두산을 시찰함으로써 한해에 중국과 북한을 통해 백두산을 탐사하는 기록을 남겼다. 해외 탐사 이외에도 하천별 보고서와 사진전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생생히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 백두산·두만강 탐사

탐사단은 한라산 탐사를 전개하면서 남과 북의 성산으로 추앙받고 있으면서

동질성을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백두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곳에 대한 탐사를 전개했다. 백두산 탐사는 2000년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중국 연변을 통해 이뤄졌다.

백두산 탐사에서는 기존 관광루트가 아닌 중국내에서조차 거의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서백두코스를 따라 식물, 지질, 곤충, 조류상과 주요 습지(원지, 왕지)를 조사했다.

탐사단은 백두산 탐사에 이어 우리 국토의 최북단인 두만강탐사에 나서 중국쪽 원류와 본류를 탐사한데 이어 조·중 국경지대를 따라 200여km를 답사했다. 두만강 탐사에서는 중상류의 지질학적 특징과 식물상, 조선족 사회를 집중 취재보도했다.

특히 탐사 기간 중국 국가급 장백산(백두산)자연보호구 산하 장백산자연박물관과 상호 학술교

류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접근하고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 최근 정식 학술교류를 조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이후 매년 양지역을 교차방문하는 등 정기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또 탐사기간 연변대학 교수들과 현지에서 한라산과 백두산의 지질, 식생 등을 중심으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탐사단은 역사적인 남북교류를 계기로 성사된 한라~백두 교차시찰단에 탐사팀장인 한라일보사 강문규편집국장이 한라산학술탐사팀장 자격으로 참여, 2000년 9월 6박 7일간 백두산과 묘향산, 삼지연 등 북한을 취재했다.

#### △# 북한경유 백두산 취재

강국장의 북한 경유 백두산 취재는 특별취재반과 전문가그룹의 탐사위원들에 의한 백두산탐사(중국 연변 경유)에 바로 이른 것이어서 동시기에 중국과 북한을 통해 백두산을 동시에 조명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특히 강국장 일행은 백두산 천지연구소를 방문한 후 한라산에도 천지연구소에 버금가는 연구소 설립을 제주도지사에 건의, 2001년 한라산연구소가 태동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라산연구소와 북측 당국은 올해부터 상호 학술교류를 전개할 계획이다.

#### △# 일본 규슈 탐사

탐사단은 백두산 두만강 탐사에 이어 2001년 11월 9일부터 5일간 일본 규슈 일대 비교탐사를 실시했다. 규슈는 화산섬이자 온대, 아열대 식물의 중요한 자생지로 알려져 있어 제주와 비교연구지역으로 관심을 끌었다. 탐사내용은 모두 5회에 걸쳐 집중 보도됐다.

#### △# 탐사사진전

탐사단의 활동은 사진전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생생히 전달됐다. 그 첫 사진전이 99년 7월부터 8월말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청사 개청이래 처음으로 열렸다.

전시회에는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를 찾은 국내외관광객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모아 관람객이 수십만명에 달했다. 이같은 열기와 관심은 아직껏 베일에 가려져왔던 한라산의 비경과 절경들이 비로소 진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2차 탐사 사진전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주제로 2000년 9월 25일부터 10월말 까지 일정으로 현재 제주국제공항 1, 3층 여객청사에서 다시 열렸다.

2차 사진전은 통일부 후원으로 백두산과 두만강 탐사 내용들이 함께 전시됐으며 역사적인 남북교류와 장관급 회담, 교차관광을 기념해 마련돼 도민과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2000년 12월에는 문화관광부가 주관하고 한라일보사와 한국관광공사 공동 주관으로 '한라~백두 교차관광 사진전'이 열렸다.

#### △# 탐사보고서

탐사단은 탐사내용과 과정을 지상 보도에 그치지 않고 이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기 위해 하천별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았다.

그 첫 결과물이 '제주 최장의 하천, 천미천'이었다. 탐사단은 이어 2002년 8월 두번째 보고서 '효돈천' 이어 올해 초에는 '제주최대의 하천, 한천'시리즈를 발간했다. 제주하천에 대한 종합보고서로는 처음 선보인 것이었다. 탐사단은 앞으로도 하천별 보고서를 계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 △탐사단 백록담 담수조사

한라산탐사단은 2003년 7월 한라산 백록담의 수위와 면적, 저장량에 대한 종합 실측조사를 실시했다. 백록담 실측은 학계와 언론계 통틀어 처음 실시된 것으로 백록담 장기 수위관측을 위한 과학적 토대와 기준점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실측결과 한라산 정상 분화구 호수인 백록담의 담수위는 만수위때 4.05m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담수면적과 저장 가능 용량은 각각 2만여평방m, 5만6천여톤으로 나타났다. 백록담의 ▷담수 공간과 ▷집중강우 때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만수 공간 ▷분화구 경사면에서 유실된 토사 퇴적층을 감안했을 경우 담수변화상 등을 종합적으로 실측·분석한 결과였다.

실측조사는 한라산생태학술탐사단과 한라산연구소, 대한지적공사 제주지사, 농업기반공사 제주본부가 공동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